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7

“우리도 함께 뛴다”

건강한 사람들 달림이

26인의 ‘달리는 기부 천사’ 1km 뛸 때마다 ‘100원 나눔’

건강도 다지고 사랑나눔도 함께 하며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마라톤동호회 ‘건강한 사람들 달림이’이다.

2005년 겨울 두암동 한 헬스클럽에서 운

“뛰어보자” 헬스장서 의기투합

동하던 주민들끼리 ‘이젠 밖에서 달려보자’는 뜻을 같이해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 현재 회원 수 26명인 ‘건강한 사람들 달림이’는 수적으로는 적지만 결속력 만큼은 여느 동호회에 뛰지 않는다. 오랜시간 운동으로 엉어진 인연이 이젠 친형제처럼 가슴 깊은 애기도 나누는 가족같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건강한 신체 못지 않게 건강한 정신·따뜻한 정이 넘쳐 흐른

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큰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코스 1km 당 100원씩을 모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에는 쌀 20kg짜리 10km를 등사 무소에, 지난해에는 46만6천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각각 전달했다.

김이승(49) 회장은 “회원들도 너구한 생활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돋지는데 흔쾌히 동의했다”면서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랑나눔은 계속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총 530km를 달려 가장 많은 성금을 낸 김 회장은 회원들 사이에 ‘달리는 기부천사’로 불리운다.

‘건강한 사람들 달림이’는 기록도 만만찮

다. 최기영(46)씨는 풀코스 3시간2분으로 모임 최고기록 보유자이다. 김회장도 풀코스 3시간6분으로 그 뒤를 달리고 있으며 윤

트라 마라톤 1회 완주 기록도 가지고 있다.

일요일이면 무등산서 실전훈련

하프코스에선 53세의 이찬범씨가 1시간43분으로 ‘톱’을 달린다. 또한 박명순·김경희씨는 10km·하프대회서 입상 경험이 많은 여자회원이다.

61세로 모임의 큰형인 송희성씨는 하루도 결석하지 않는 ‘모범생’.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고용석(57)씨도 성실성을 뛰어지지 않는다. 특히 고씨는 “운동시작 전 96kg의 체중을 8개월만에 80kg으로 줄여 요즘은



2005년 결성된 마라톤동호회 ‘건강한 사람들 달림이’는 참가대회 코스 1km 뛸 때마다 성금 100원씩 적립하는 등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 서고 있다.

즐겁게 운전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건강한 사람들 달림이’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 회원 풀코스 완주와 SUB-3 회원 탄생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이들은 평일엔 개인 웨이트 트레이닝·

전 회원 풀코스 완주 목표

스피드 훈련을 하고 일요일엔 무등산 일대에서 30km~40km를 달리는 실전훈련을

반복해 오고 있다.

‘건강한 사람들 달림이’가 평소 달리며 흘렸던 땀과 쌓아놓은 정이 이번 대회서 좋은 결실 맷기를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IA ‘V10’ 밑거름 되겠다”

정성철·안치홍 등 ‘아기 호랑이’ 10명 입단식

KIA 타이거즈의 ‘아기 호랑이’들이 입단식을 갖고 프로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정성철·안치홍 등 2009 신인선수 10명은 12일 광주 서구 내방동 구단사무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정식으로 KIA 신인왕을 입었다. 첫 차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를 찾는 등 신인선수의 부모들은 자랑스런 아들의 입단식을 지켜보기 위해 눈길을 끄고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았다.

각각 다른 성과 능력을 보유한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한결 같았다. ‘KIA 타이거즈 우승을 위하여’라는 구호로

프로로서의 새 각오를 다진 선수들은 쟁쟁한 선배들과의 경쟁을 뚫고 1군에 올라 팀 우승의 감격을 누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1차 지명으로 KIA 마운드에 가세한 정성철은 “명문구단에서 확고히 자리 매김을 하고 싶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KIA 신인왕에 도전하겠다”고 프로 데뷔 첫 해의 포부를 밝혔다. 내야 유망주로 포함되면서 특별 훈련까지 소화한 안치홍과 손정훈은 “아마와 달리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프로가 무한 경쟁의 무대라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선배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게 나아간다면

충분히 능력을 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투수 정용운은 “최고의 좌투수가 되어 당장 10승을 올리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혀 환하게 되기도 했다.

이날 김조호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9번 우승에 빛나는 타이거즈의 전통을 이는 훌륭한 선수들이 되길 바란다”며 “프로 선수인 만큼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 공인의식을 갖고 최고의 선수가 되어 주라”고 당부했다.

‘아기 호랑이’들의 조련은 맡은 조범현 감독도 신인선수들에게 꽂다발을 전해주며 프로 선수로서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프로야구 별들의 모임 ‘성구회’ 떴다

투·타서 대기록 달성 선수들 가입

송진우·양준혁·전준호 창립 멤버

프로야구 27년사에 큰 족적을 남긴 스타들이 한국판 ‘명예의 전당’을 스스로 만든다.

별들의 모임인 ‘성구회’(星球會)가 공식 출범해 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성구회’는 투타에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긴 선수들만 가입하는 단체로 타자는 통산 2천안타 이상을 때리고 투수는 200승 또는 300세이브 이상을 거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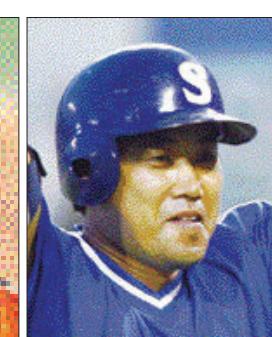
한국프로야구에서는 209승153패, 103세이브를 올린 좌투수 송진우(43·한화)와 2천20안타를 때리고 타자 부문 통산 기록을 쳐다 새로 쓰는 중인 양준혁(40·삼성), 지난해까지 2천10안타를 때리 두 번째로 2천 안타를 넘긴 전준호(40·히어로즈) 등 세 명으로 이들이 창립 멤버다.

셋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구회가 출범한 의미와 가입 조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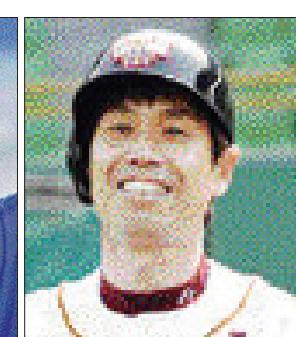
미국프로야구에는 ‘명예의 전당’이, 일본프로야구에는 ‘명구회’가 있다. 10년차 이상 기자들로 구성된 미국야구기자협회



〈송진우〉



〈양준혁〉



〈전준호〉

는 해마다 투표로 명예의 전당에 입당할 선수를 뽑는다. 선수들이 남긴 기록은 물론 모범적인 사생활, 스타성, 팀 공헌도 등을 모두 따져 별증의 별만 주린다.

은퇴한지 5년이 지난 후 입당 자격을 얻고 기자들의 투표에서 75% 이상을 얻어야 하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지난 해까지 선수, 심판, 감독 등 메이저리그를 빛낸 전설 287명이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다.

일본은 1978년 400승 투수 가네다 마사 이치(한국명 김정일) 등이 중심이 돼 명

구회(名球會)를 만들었다. 성구회는 이 명구회의 가입 조건을 본떴다.

명구회는 투수는 200승 또는 250세이브 이상, 타자는 2천 안타 이상을 때린 선수를 받는다. 2003년 개정된 규정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거둔 성적도 합산한다.

투수는 19명, 타자는 37명이 가입했다. 기록을 달성하더라도 입회 의사가 없으면 가입이 안 되는 특이 규정에 따라 협의 때부터 입회를 거부해 온 오지아이·히로미쓰 주니치 드래곤스 감독은 명단에서 빠져 있기도 하다.

/연합뉴스

박찬호, 김인식 감독 러브콜 받을까

메인 스폰서 협상 난항

WBC 참가 여부 오늘 결정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사진)가 13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 여부를 밝힌다.

박찬호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맡은 ‘팀 61’은 13일 오전 9시30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와 계약한 조건과 WBC와 관련한 최종 입장, 앞으로 훈련 계획 등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예정인 박찬호는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으로부터 강한 러브콜을 받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김인식 감독은 “박찬호로부터 에이전트와 몇 가지 상의할 문제가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WBC 참가와 관련한 내용은 듣지 못

했다”면서 이날 기자회견에 축각을 곤두세웠다.

필라델피아와 1년간 기본 연봉 250만달러를 포함, 최대 500만달러에 계약한 박찬호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도 발표할 참이다.

박찬호는 선발로 뛸 때 투구 이닝과 출장 경기 수에 따라 5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구원으로 보직이 정해지면 30경기부터 75경기까지 5경기마다 2만달러씩 보너스를 받아 300~400만달러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계약했다.

7일 필라델피아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필리스의 정식 식구가 된 박찬호는 옵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히어로즈가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메인 스폰서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작은 스폰서업체 세 곳과 이미 후원 조건에 합의한 히어로즈는 그러나 운영 자금의 절줄인 메인스폰서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를 중에는 은행, 보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석 히어로즈 구단 대표는 12일 “현재 7개 기업과 메인스폰서 협상을 추진 중이다. (경제 한파로) 1년에 100억원을 선뜻 내겠다는 기업은 없는 형편이나 상황은 희망적이다. 정규 시즌 개막전까지 모든 스폰서와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한 기업이 메인스폰서로 나서는 것보다 2~3개 기업이 분산 후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 시장이 얼어붙어 후원계약이 애초 예정했던 지난 연말에서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희섭 연봉 1억5천만원 삭감

KIA 2억원에 재계약

‘빅 초이’ 최희섭이 지난해보다 42.9% 삭감된 연봉 2억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최희섭은 12일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연봉을 백지 위임했다. 이에 따라 KIA는 최희섭과 지난해 연봉 3억5천만원에서 42.9% 삭감된 2억원에 연봉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최희섭은 “지난 시즌이 끝나면서부터 열심히 했다. 올해는 최선을 다해 이름에 걸맞는 활약

을 펼치겠다”며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봉 액수에 대해서는 구단에 아쉬움이 없다. 올해는 구단과 나 자신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최희섭은 부상에 시달리며 55경기에서 나서 0.229의 타율, 6홈런 22타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날 최희섭이 연봉 재계약을 마친에 따라 KIA 연봉 재계약 대상자 52명 중 44명과 재계약이 끝나 재계약율은 84.6%를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